東大新聞

發行編輯兼印刷人 鄭斗石
主幹 元大展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② 1685 1686 6904

(週刊)
月定購讀料 貳拾원
一部定價 五원

今週一言

하루를 살아도 智慧를 가져야 고요히 생각할만 같지 못하다—.
—(法句經)—

最終段階의 運動場 垈地

中央都市計劃委에 回附

——九千坪의 拂下申請. 市都市計劃委通過——

그동안 全東大人의 숙원으로 되어오던 本校 運動場 垈地 拂下問題가 드디어 解決段階에 들어감으로써 東大運動場設置의 꿈이 今明間 實現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四千餘東國健兒의 廣場、運動場을 마련하기 위해 學校當局에서는 그 間 政府關係當局과 數次의 교섭을 통하여 이의 實現을 推進해 오던중 지난 1日 드디어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會에서 同垈地拂下問題가 정식으로 通過되어 建設部 中央都市計劃委員會에 回附됨으로서 그 歸趨가 극히 注目되고 있다。大學生의 健全한 體位向上이 文敎政策의 一環임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이에 발을 마추어 學校當局에서는 四千東大健兒의 廣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月부터 關係當局에 國有林野 九千餘坪의 拂下를 申請했던 것이다。

이제 曙光이 비쳐오는 本校運動場 垈地의 拂下問題는、그동안 林部의 推薦을 얻음 서울特別市를 거쳐 서울特別市都市計劃委員會에서 정식으로 通過되어 中央都市計劃委員會에 回附된 것이다。

그런데 中央都市計劃委員會는 議決機關으로서 關係當局者와 斯界專門家들로 構成되어 있는 今年內에 會議가 召集되어 本校運動場 垈地 拂下問題를 論議한다음 最終決定을 내리게 될 豫定이다。

學士考試制存續

專攻科目試驗도 끝나

學士資格考試 專攻科目 試驗이 3日 예정대로 個試驗場에서 일제히 實施되어 16年間의 學校試驗에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이 學士考試制度는 「大學敎育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存續」될 것이라는 鄭世雄文敎部委員談으로 미루어 보아앞으로도 그 準備에 萬全을 기해야 될 것같다。

이번 專攻試驗은 各 大學別로 專攻에 따라 問題가 出題되었으며 主觀式 客觀式 半의 出題形式을 擇하였다。

大學一學年時에 履修한 敎養課程을 除外 二、三、四學年 三年을 通해 그학교에서 배운 全 專攻科目에 對해 實力을 테스트한 이번 試驗問題는 客觀式이 90 主觀式은 三내지 六문제에 90點 만점이고 항의 출제로 종 一백 點만점으로 종 80 90點이다。

이날 學士考試 第五 地區인 본교및 카도릭 본교와 建大 樂園洞校 會에서 시험을 치렀다。

敎養科目 試驗에 응시했던 全員이 전공시험을 치루었는데 專攻科目試驗 問題는 自已專攻學科를 정상적으로 履修한 사람이면 누구나 풀수 있게 出題되었다。이러한 出題傾向을 應試者들은 比較的 쉬운 易한 便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전공試驗答案紙는 10일內로 채점을 完了하여 文敎部에 보고하게 되어 학력 今年度 學士考試 最終合格者는 敎養專攻 綜合科目 성적을 參酌하여 오는 1월말까지는 發表될것이라고한다。

分科委長指名

代議員會議長團서

議長團에서는 4日 同會傘下各分科委員長을 指名하였다。이날 指名된 各分科委員長들은 다음과 같다。

▲運營分科委員長=權五鳳(農三) ▲學術分科委員長=姜永薰(農經三) ▲財政分科委員長=金基洙(經營三)

學生課에서는 冬季運動選手들의 選手및專攻者들에 對한 申告를 받는다고 한다。

冬季運動選手

學生課에申告

學會長會議

六日學生會室서

生會本校 議室에서 6日 22日下午 學會長 이는한件은 이날 午 建學會 참석하는 각 學會長들 議 討 再 議 바라고 알려지고 빠지고 議 있다。 案 있다。

健全한財團이룩

孫喜璡理事長·李能嘉常務理事 就任

財團法人 東國學院 新任理事會열어

三日記者會見서强調

이번 文敎部의 任命에따라 新任財團理事會에서는 11월 28일의 理事長과 常務理事를 選出했는데 理事長에는 孫喜璡 진스님 常務理事에는 李能嘉스님이 東洋精神의 象牙塔인 東大의 發展을 위하여 就任하였다。이날 오 就任所感을 피력하였다。

孫理事長과 李常務理事는 이어서 有名無 實한 存在이었음을 지적하고 施設擴張의 實現을 보게하겠다고 理事會의 所信을 밝히면서 對해서 言及、具體的인 案은 차차 理事會에 回附된 것이다。

中央都市計劃委員 會에서 정식으로 通過되어 中央都市計劃委員 會에서 마지막 段階인 建設部 回附된 것이다。

▲孫喜璡理事=서울特別市 市長 ▲李能嘉常務理事=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 ▲李常務理事=

아직 理事會의 정식 校財政確保에 關해서는 없는 關係로 學이 以上의 구체적인 言 決議가 學校附屬施設等 本校가 當面한 어려가지 事會의 議決을 거쳐 세워진 것이라고 하였다。

接待費支出당치않아

敎授 體育費는 別途 징수해야지

會費不當支出은 指導소홀탓 學生

▲學生會長▲ 金仁圭

△指導敎授△ 李丙疇

紙上対談

누굴위한 自治會냐

▲金仁圭=學生自治活動에 對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은데요。 特히 지난 一年동안 自治會費支出項目의 新聞에 發表된後 自治活動의 方向이 再檢討 되어야 겠다는소리가 높은가 보던데요……

▲李丙疇=글세요。그건 當然한 여론이 아니겠어요? 우선、學生自治活動에 있어서는 主體的으로 나가는 自治會의 幹部들과 또 自治活動을 指導하는 敎授들이 계시잖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學生幹部들의 姿勢가 問題라고 생각돼요。몇년간을 두고 보아왔지만 幹部들은 매개『나』를 위한 幹部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金仁圭=그렇지요。 以前에 있었던 일인데요、學生의 會費支出도 學生全員에게 憲法에 없는 것인데 이번 幹部들이 그런 것을 쓰는 모양인데 이 것도 自治活動 일수 있겠어요? 먼저學生의 分數에 맞아야 합니다。

▲金仁圭=그點은 以前에 있었던 일인데요、學生의 會費支出도 學生全員에게 憲法에 없는 것인데 이번 幹部들이 그런 것을 쓰는 모양인데 이 것도 自治活動 일수 있겠어요? 먼저學生의 分數에 맞아야 합니다。

▲李丙疇=좋은말씀이 있었지만 幹部들은 이런 點을 스스로 뜯어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金仁圭=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번 幹部들은 이런 點을 스스로 뜯어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李丙疇=좋은말씀이십니다。그러고 敎授들도 對해서한마디하면 고싶은데 자꾸 지만하니 그만두겠습니다。

▲金仁圭=그렇지요。 敎授들도 對해서 한마디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만 그만두겠습니다。

▲李丙疇=좋은말씀이십니다。 敎授님들도 계시지만 全然 無誠意 한 敎授님도 계시거든요。

▲金仁圭=그래서 敎授들의 熱誠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李丙疇=좋은말씀이십니다。 敎授님들의 指導가 없었다면 學生들은 無軌道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니 敎授

既成世代와大學生

社說

요즈음 社會에서 注目을 끌고 있는 社會風潮의 하나가있다。 이는 곧 새로운「世代」에 對한 對立이라고 하겠다。

大學이란 學問의 殿堂으로서 大學自體의 機能이란 社會乃至國家에 對하여 또한 重大 責任이 負荷되어 있는 것임을 自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大學生이 걸머지고 있는 責任을 爲先 두가지 면에 立脚하여서 다루어야 할것이다。 그 첫째는 大學生 自體의 內部的인 것이고、 둘째로는 外部的인 것이다라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國家와 大學社會란 그 둘사이의 調和가 없이는 大學의 責任이 完全하게 遂行될수가 없는 것이란것이다。 그리고 大學生들 가운데는「既成世代」를 一括的으로 蒼惡과 腐敗의 世代라고 보는 潛在意識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既成世代를 不潔하고 安易한 世代로 取扱을 하는경향도 있는것같다。

그러므로 大學生들、 가운데는 나이먹은 사람들을 爲하는 大學生들은 아직까지도 敵意와 悔恨의 語感으로써 부르는것이「既成世代」이다。

한편 나이먹은 사람들은 또한「既成世代」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젊은 放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世代로 取扱을 하며 蔑視하는 경향도 있는것같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젊은 世代는 一括的으로 自制心도 없고 禮儀 範節이나 道義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誤解를 받기가 쉽다。

그들은 젊은 世代를 不良하고 粗雜한 世代로 取扱하기도 한다。 不倫한사람들의 世代로 取扱하기도 한다。 이렇게 機械的인 固定된 觀念을 文學으로써 擴大시키고、 또한 誇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의곡된 世代像이 世代와 世代사이를 斷層과 障壁으로써 强化하고 있는 것같다。

世代사이의 葛藤이 社會의 健全한 發展을 爲해서는 不可避한 現象일는지도 모르겠으나 이나라 社會의 健全한 發展을 爲해서 要請이되는것은 世代間의 對立을 强調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世代間의 克服해서 相互間에 理解를 圖謀하는것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 社會發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된다。

그러기 爲해서 大學生들은 먼저 自身의 큰 所願으로서 眞理를 探究하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學問의 自由」 그리고 自己自身에 알맞는「性品과 氣質」이 있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自己自身이 現在 位置라던가、 權利行事라든가、 또는 健康한 몸가짐에 對해서 까지도 特히 心을가지고 있어야 할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나설 大學生들은 이世上에서 價値있는 生涯와 自由를 爲해서 自己自身이 率先해서 責任感을 重要視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大學生들의 社會에서 아니 大學이란 集團社會에서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大學生들은 自身의 良心을 始終 一貫하여 메지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現實같이 環境과 敎育內容의 差異에서 이렇게도 엄청난 差異가 發生한 것이라고 믿어지기는 布望을 걸고서 前進하며 社會環境에 對한 改善에努力을 傾注하는 한편 그들에게는 未來에對한 自負心과 希望을주는 敎育態度도 確立이 되어야 한다고 强調하고 싶다。

敎育態度에서 大學生들은 이 社會를 興味本位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겠다。 大學生들은 어떤 局部的인 現象을 가지고 全體化한다던지、 또는 誇張擴大해서 모—든 새로운世代를 都賣金으로 안될것이다。 몰아붙여서 생각을 하여서도 안될것이다。

旣成世代는 자라나는 새 世代에게 진한 理解와 指導를해야하며 그들은 後輩라는 愛의 未來를 擔當할 우리들의 아끼지말아야 할것이다。 情을 우리들은 世代를 보려는 偏見이 새世代의 健全한 發展을 爲하는 길은 아니라고 우리는 强調하고 싶다。

끝으로 모—든 社會人들은 大學生들의 人生觀이나 社會觀을 往往懷疑하는 憂慮를 表明하거나 또는 小說이라던지 或은 映畵等等 大學生들의 人生觀이고 享樂主義的인 方向을 便宜主義的인 情性을 實情과 距離가 멀리 觀을 描寫하는 指摘을하는 바이다。

一週一言

自古 林의 分野에서 緊要性은 醫學 團林地가 所要되는것 古森 蒼 森林의 經營의 施業計劃에 森林 한 森 林의 一箇 事業區의 單位 林 風致 佛 利 崇嚴 閣寺 性 原理는 造林 林 產製造學의 基礎가 될 것이나 應用技術이 缺如된곳에서는 風致造成 및 保護 林學이 크므로 各 寺刹에서는 撫育禁養에 노력 解 況 大自然下의 廣 森林에서 無常 麥 森 敦學 物理의 面 測量 基礎 知識이 있으면 原理 樹 木生理는 곧 造林 林 解得할것이요、 對하여 地區 測量 面積 表를 集計 檢 寺刹林의 道別 二 割 面積 合計 綜合 內部的인 勿論이요 營林計 小 合理的인 分敦地가 되 割 해본즉 그 大部分은 寺刹 林의 實踐되는 育英育 大計가 있음 結論해둔다。 (글 쓴이·農林大學長)

演習林은 어떻게 策定할것인가

學術理論과 實踐技術의 保習道場으로 集團地區策定이 先行要件

李昇雨

本朝財政史의 諸問題

憲 洪 杓 (下)

英祖元年(一七二五年)에 四一六、九〇六石 一、三七七、三七七、一七七 一三一石이 되고、 其後 二十二年後에는 九〇六石이 되었고 九、六七八石이 되었고 六、九、二 六年에는 一八〇七年(純祖七年)에는 九、九九五、五九五石에 達하였다。 平均 一年間 其利穀은 約七〇〇、〇〇〇石이된다。 還穀制度의 旺盛함에 따라 弊端이 많이 생겼다。 純祖以後 漸次 그의 回各 立하여 國王의 門下府가 立關하여 同時에 邸評議使司 機關을 兼한 立法機 이것을 統轄하였다。 六曹및 國王의 直屬의 土木營繕의 事務를 管掌하고 宮內府가 있었다。 國王直屬의 宮內府中 事務를 管掌하고 會計一切의 事務를 管掌하고 三司가 있었다。 三道의 觀察使 및 巡察使 三司는 一四〇五年 司平府로 改稱하고 一四〇五年 合併하여 府를 戶曹에 이르기까지 繼續하였다。 開國五百三年에 이르기까지 其機構를 戶曹는 財政의 最高 機關으로써 新經費의 支出 倉府라 稱하고 唐調를 管掌하고 高麗朝初에는 改稱하여 戶曹라고 稱하여 戶·口·民役·賦및 錢穀의 事務를 管掌하였었다。 그 후 戶部·版圖·民曹라 改稱하였다가、 其末葉에 戶曹라 稱하였다。 李朝도 亦是 開國五百三年의 改革에 이르기까지 其名稱을 使用하였다가 度支衙門으로 改稱하고 其翌年 度支部라 稱하였다。

太宗五年(一四〇五年)에 東亞의 風雲이 急하여지고、 中日戰爭이 開始된 開國五百三年에 日本은 內政干涉에 나섰다。 그 財政改革의 要求로서、 租稅는 度支部에 統一하고、 國民에게 賦課하는 租稅는 하는 外는 何等의 名儀로써도 徵收 收稅로써 하고 王室 및 各宮의 費用을 豫算에 計上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條項이 改革案中에 挿入되어 있었다。

豫算制度로서 宮中、 府中의 區別을 王室有고、 宮房所의 區別은 宮內府로 移管하고、 中央 및 地方 官廳은 國有에 넘기고、 一切의 度支部에 移管하였다。 租稅는 金納으로 一定하게 되었다。 一方會計法을 制定하고、 經費支出을 改正하는 近代制度를 採擇하기는 하였으나、 단 形式에 不過하였고、 中央財政機關인 度支部는 豫算編成 및 執行 하더라도 空文에 不過하였다。 各軍營、 宮內府 等 太祖도 凶年 및 救荒 및 物價의 調節을 擔當하고 賑貸救濟의 法을 定하였고 太宗元年(一四五〇年)에는 其事務를 戶稅를 設定하였다。 또 新 管掌機關을 設置한 結 果 戶曹의 管掌에 屬 하는것을 新機關에 移 將次는 東南亞 各國의 管한것、 或은 廢止된것을 復活하여 新機關에 關한 事務는 戶曹의 管掌시키므로써 戶曹의 權限은 縮少되고 新機關은 戶曹를 凌駕하는 一大財政機關이되었다。 即 糴餉廳、 宣惠廳、 賑貸救濟에 關한 事務는 宣惠廳에 移管되었다。

建國以來 兼職하였고 守令은 觀察使의監督을 받고 其行政區域內에 課稅收徵의 責任을 負荷하게 되었다。

地方廳도 亦是 中央政府에 準하며 事務의 性質에 따라 各房 各色에 分營되고 徵稅 및 地方 統一이되었지 않고 地方 大同色은 土地 및 田稅 大同色은 大同의米、布、錢、均役色은 均役、結役色은 地方民에게 賦課하는 役 奴婢貢、 司倉色은 還穀、 諸倉色은 其倉庫의出納 兵房色은 軍保 및 番錢、 水軍色은 水軍保 및 番錢(註·色은 只今 係에 該當) 또 村落에 있어서는 一鄕에 座首를 두고 座首밑에 다시 面里統에 首里에 두고、 地方에 徵收 및 督促 의 任務를 지웠다。 이 組織은 麗朝以來 開國五〇三年 近代的 制度 實施때까지 繼續되었으나 世祖時에 一時 中止를 본 以外에 變動이 없었다。 肅宗時에 五家作統의 事目二十一條를 制定하였을 때、 統里는 同時에 風朝의 維持者로 條目中에 規定되었었다。

收稅物은 各道 船舶集合地點에 船 船은 備置하고 各郡의 轉送만 郡을 定하여 納 付케하고 各倉에는 都 差員、 差吏員을 두고 稅 檢査하고 包裝船 物을 積하여 中央政府의 倉庫에 回送시켰다。 交通 船을 賃貸하여 中央政府의 倉庫에 直納하고 布、 山郡에 있어서는 綿 또는 錢(돈)의 代納을 許容하여 中央政府에 直納 시켰다。

(글쓴이·法政大敎授)

雪梨를 다녀와서

書評

楊寅祺

中國 사람들이 漢字를 다루는 솜씨는 제법 雅趣가 있읍니다。 Sydney를 「雪梨」라고 그들은 씁니다。 世界의 三大 美港의 華奢하게 어울리는 雪梨에는 글字들입니다。 눈이 오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常夏의 나라는 아닙니다。 南半球의 大陸인濠州는 北端은 熱帶이지만 南端의 緯度는 亞리나라와 비슷해서 四季가分明한 기후좋은 곳입니다。 여름에 서울을 떠나 雪梨에 닿으니 오바는 겨울이 엿었는데 必要없고 스프링이 겨치면 알 맞을 程度입니다。

때낄때 人事도 못차리고 허둥지둥 떠났기 때문에 東大新聞에 보내드리고、 第一信을 보내드리는 事兼 第二信、 第三信 게 보내려는 못했다。 그것이 生來의 처음의 닷이로 謝過를 드려야 하겠읍니다。 赤道 여기 사람은 늘 赤道를 지날때 유별난 感覺을 가지게 됩니다。 地球 自轉의 影響으로 물의 過動이 北半球에서는 時計바늘도 反對 方向으로 돌고 南半球에서는 時計바늘도 方向으로 돌 것과는 것을 講義 球에서는 時計바늘도 方向으로 돌 것을 講義 하게 됩니다。 우리의 敎育制度와 理念을 探求하는 方法으로 돌아보면 一章으로 近代에 이르는 敎育 六章으로 古代로부터 十二章 十四章과 十五章 韓國敎育과 志向 國家의 敎育思想까지 論 十三章에는 共產 文化史的의 으로 詳細히 敎育 育目的과 思想을 敎育 的인 작은 現象을 가지고 全體化한다던지、 또는 都賣金으로 一定한「카레고리」속에 몰아넣어서 생각을 하여서도 안될것이다。 旣成世代는 指導를해야하며 그들은 世代에게 未來를 擔當할 우리들의 後輩라는 愛情을 우리들은 아끼지말아야 할것이다。

粗雜한 機械的인 固定觀念으로 世代를 보려는 偏見이 새世代의 健全한 發展을 爲하는 길은 아니라고 우리는 强調하고 싶다。

敎育態度에서 大學生들은 이 社會를 興味本位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겠다。 大學生들은 어떤 局部的인 現象을 가지고 全體化한다던지、 또는 誇張擴大해서 모—든 새로운世代를 都賣金으로 一定한「카레고리」속에 몰아넣어서 생각을 하여서도 안될것이다。 旣成世代는 자라나는 새 世代에게 진한 理解와 指導를해야하며 그들은 後輩라는 愛情을 우리들은 아끼지말아야 할것이다。

敎育의 復雜性을 深刻하게 切實히 感知할때는 없을것같다。 急速度로 發展 政治、 文化、 經濟 敎育의 여러 問題가 一層 더 複雜性을 가져 온다。 具體的으로 解決 設的、 現實的으로 나라의 育問題만은 敎 敎育은 建 國家의 企業이며 敎育은 裂되고 落되는 法이다。 그 나라 民族은 思想的으로 墮 文化的으로 分 되지 않으면 敎育 中에서도 敎育 要性을 深刻하게 切實히 感 知할때는 없을것같다。 急速度로 發展 用되어 있다。 適合한 敎育制度 蘇聯은 共產主義思想을 養成시키는 方法으로 帝國主義 思想을、 獨逸 은 나치즘의 思想을、 過去의 各國의 敎 育制度와 思想을 史的 考察될것이 要請 되는 것이다。 우리의 敎育制度와 理念을 探求하는 方法으로 돌아보면 一章으로 近代에 이르는 敎育 六章으로 古代로부터 十二章 十四章과 十五章 韓國敎育과 志向 國家의 敎育思想까지 論 十三章에는 共產 文化史的의 으로 詳細히 敎育 育目的과 思想을 敎育 的인 작은 現象을 가지고 全體化한다던지、 또는 誇張擴大해서 모—든 새로운世代를 都賣金으로 一定한「카레고리」속에 몰아넣어서 생각을 하여서도 안될것이다。

林漢永 著

「敎育思潮史」

粗雜한 機械的인 偏見이 새世代의 健全한 發展을 爲하는 길은 아니라고 우리는 强調하고 싶다。

끝으로 모—든 社會人들은 大學生들의 人生觀이나 社會觀을 往往懷疑하는 憂慮를 表明하거나 또는 小說이라던지 或은 映畵等等 大學生들의 人生觀이고 享樂主義的인 方向을 便宜主義的인 情性을 實情과 距離가 멀리 觀을 描寫하는 指摘을하는 바이다。

一週一言

自古 林의 分野에서 緊要性은 醫學 團林地가 所要되는것 古森 蒼 森林의 經營의 施業計劃에 森林 한 森 林의 一箇 事業區의 單位 林 風致 佛 利 崇嚴 閣寺 性 原理는 造林 林 產製造學의 基礎가 될 것이나 應用技術이 缺如된곳에서는 風致造成 및 保護 林學이 크므로 各 寺刹에서는 撫育禁養에 노력 解 況 大自然下의 廣 森林에서 無常 麥 森 敦學 物理의 面 測量 基礎 知識이 있으면 原理 樹 木生理는 곧 造林 林 解得할것이요、 對하여 地區 測量 面積 表를 集計 檢 寺刹林의 道別 二 割 面積 合計 綜合 內部的인 勿論이요 營林計 小 合理的인 分敦地가 되 割 해본즉 그 大部分은 寺刹 林의 實踐되는 育英育 大計가 있음 結論해둔다。 (글 쓴이·農林大學長)

常平倉義倉은 이미 高麗朝에 設置

亂으로因한 財政窮乏은 稅制의改革으로 凶作期엔隨時 賑恤廳을 新設

李太祖建國(一三九二年)初에 高麗의 制度를 議政府로 改革하고 一四〇一年 門下府 司平府로 改稱하였다。 三司는 一四〇五年 司平府로 改稱하고 一三司를 廢止하고 議政府에 移管하였다。 그 후 中宗(一五三一年)時 京畿、 黃海、 忠淸、 全羅、 慶尙 四道의 田結 및 賦課 每一結에 米一斗를 賦課하고、 後에는 改正하여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四道의 田結 一斗五升을 賦課하였다。 그러나 많이 反 宗十三年(一八六二年)에 收稅가 不能에 빠져 哲 宗 敵意와 悔恨의 語感 六一、六九八石으로 減少하고 드디어 二、三石이 되었다。 그 結果 廢止하게 되었다。 그러나 各官廳은 過 牛의 財源을 喪失하고 財源으로 經營 하던 施設은 全減하고 農民은 融資의 負擔을 없게 되었다。

一八六五年 洋擾(세국)로써 國防의 緊急 하게 되었다。 砲軍營 設置의 經費의 支出 安、咸鏡 兩道의 米一斗를 賦課 除外 國의 唐調를 管掌하고 高麗朝初에는 改稱하여 戶曹라고 稱하여 戶·口·民役·賦및 錢穀의 事務를 管掌하였다。 그 後에는 調府라고 稱하여 戶曹라고 稱하였다。 李朝의 最高 機關으로써 新經費의 支出 倉府라 稱하고 唐調를 管掌하고 高麗朝初에는 改稱하여 戶曹라고 稱하여 戶·口·民役·賦및 錢穀의 事務를 管掌하였었다。 그 후 戶部·版圖·民曹라 改稱하였다가、 其末葉에 戶曹라 稱하였다。 李朝도 亦是 開國五百三年의 改革에 이르기까지 其機構를 戶曹는 財政의 最高 機關으로써 繼續하였다。

保險

◇……◇

保險會社가 危險分散을 爲하여 取하는 方法은 再保險이다。 再保險이란 保險會社가 一定한 限度 以上의 危險을 다른 保險會社에 再保險하는 것이다。 再保險에 있어서는 保險會社가 一千萬원의 契約을 締結하였을 때 그 保險會社가 自己 會社로서는 七百萬원의 負擔 및 再保險會社가 百만원을 擔當하고 三百만원은 再保險會社가 負擔하는 것이다。 再保險會社가 再保險料를 支拂하여야 하는데 그 保險會社가 自己 會社에서 再保險料를 支拂하면 保險料年 보다 低年이나라 保險에 있어서 이 再保險問題는 重大한 問題로 發五個年計劃에 依한 經濟開發 및 貿易 外資 實施때까지 繼續되었으나 保險加入對象이 擴大하고 一般 國家의 保險會社에 再保險加入하여야 할 形便이다。

그렇게 되면 外貨流出이 再保險料에 依한 負擔도 同等한다。

失業保險

◇……◇

失業保險은 失職한 勞者에 保險金을 支給하여 勞勞者의 生活安定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이다。 大自然法則을 善用하지 못할것이다。 林業은 다른 土地生業과는 그 軌道를 달리해서 伐採 假令 二〇年 每年 二〇町步의 해도 一、二〇〇町步의 植林을 하면 保險金을 支給하는 것과 같이 保險料를 拂込하는 것이 있다。 保險者는 保險이 있어서 國家의 先進國의 例로 보아 있어서도 保險料를 拂込하는 것과 拂込치 아니하는 것이 있다。 後者는 國家의 社會扶助이다。 여기서는 前者에 對하여 說明하겠다。

保險의 經營者는 政府인데 被保險者는 政府 및 被保險者 및 番錢、 水軍色은 水軍保 및 番錢(註·色은 只今 係에 該當) 또 村落에 있어서는 一鄕에 座首를 두고 座首밑에 다시 面里統에 首里에 두고、 地方에 徵收 및 督促 의 任務를 지웠다。 이 組織은 麗朝以來 開國五〇三年 近代的 制度 實施때까지 繼續되었으나 世祖時에 一時 中止를 본 以外에 變動이 없었다。 肅宗時에 五家作統의 事目二十一條를 制定하였을 때、 統里는 同時에 風朝의 維持者로 條目中에 規定되었었다。

收稅物은 各道 船舶集合地點에 船 船은 備置하고 各郡의 轉送만 郡을 定하여 納 付케하고 各倉에는 都 差員、 差吏員을 두고 稅 檢査하고 包裝船 物을 積하여 中央政府의 倉庫에 回送시켰다。 交通 船을 賃貸하여 中央政府의 倉庫에 直納하고 布、 山郡에 있어서는 綿 또는 錢(돈)의 代納을 許容하여 中央政府에 直納 시켰다。

(글쓴이·法政大敎授)

再保險

◇……◇

保險會社가 危險分散을 爲하여 取하는 方法은 再保險이다。 再保險이란 保險會社가 一定한 限度 以上의 危險을 다른 保險會社에 再保險하는 것이다。 再保險에 있어서는 保險會社가 一千萬원의 契約을 締結하였을 때 그 保險會社가 自己 會社로서는 七百萬원의 負擔 및 再保險會社가 百만원을 擔當하고 三百만원은 再保險會社가 負擔하는 것이다。 再保險會社가 再保險料를 支拂하여야 하는데 그 保險會社가 自己 會社에서 再保險料를 支拂하면 保險料年 보다 低年이나라 保險에 있어서 이 再保險問題는 重大한 問題로 發五個年計劃에 依한 經濟開發 및 貿易 外資 實施때까지 繼續되었으나 保險加入對象이 擴大하고 一般 國家의 保險會社에 再保險加入하여야 할 形便이다。

그렇게 되면 外貨流出이 再保險料에 依한 負擔도 同等한다。

失業保險

◇……◇

失業保險은 失職한 勞者에 保險金을 支給하여 勞勞者의 生活安定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이다。 大自然法則을 善用하지 못할것이다。 林業은 다른 土地生業과는 그 軌道를 달리해서 伐採 假令 二〇年 每年 二〇町步의 해도 一、二〇〇町步의 植林을 하면 保險金을 支給하는 것과 같이 保險料를 拂込하는 것이 있다。 保險者는 保險이 있어서 國家의 先進國의 例로 보아 있어서도 保險料를 拂込하는 것과 拂込치 아니하는 것이 있다。 後者는 國家의 社會扶助이다。 여기서는 前者에 對하여 說明하겠다。

保險의 經營者는 政府인데 被保險者는 政府 및 被保險者 및 番錢、 水軍色은 水軍保 및 番錢(註·色은 只今 係에 該當) 또 村落에 있어서는 一鄕에 座首를 두고 座首밑에 다시 面里統에 首里에 두고、 地方에 徵收 및 督促 의 任務를 지웠다。 이 組織은 麗朝以來 開國五〇三年 近代的 制度 實施때까지 繼續되었으나 世祖時에 一時 中止를 본 以外에 變動이 없었다。 肅宗時에 五家作統의 事目二十一條를 制定하였을 때、 統里는 同時에 風朝의 維持者로 條目中에 規定되었었다。

收稅物은 各道 船舶集合地點에 船 船은 備置하고 各郡의 轉送만 郡을 定하여 納 付케하고 各倉에는 都 差員、 差吏員을 두고 稅 檢査하고 包裝船 物을 積하여 中央政府의 倉庫에 回送시켰다。 交通 船을 賃貸하여 中央政府의 倉庫에 直納하고 布、 山郡에 있어서는 綿 또는 錢(돈)의 代納을 許容하여 中央政府에 直納 시켰다。

(글쓴이·法政大敎授)

國民年金保險

◇……◇

우리나라에서 아직 實施를 못보고 있어서도 條件을 具備하면 失業 保險에 適用되어 付의 金額과 日數等 決定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同 雇用勞者에 있어서도 增資 倉을 戶曹가 村落에義 地에 常設하고 戶曹가 常平倉、 義倉 및 常 管掌하였다。 이 事務는 國家重大 政務이므로 領議政、 左右議政의 監督 下에 두었다。 그러나 그 후 中宗(一五三一年)時 京畿、 黃海、 忠淸 三道의 凶作을 獨立 契機로 新設하여 있는데 宣轄 의 直轄 所管으로하여 戶曹의 賑恤廳을 設置하였다。 이것을 戶曹는 施設은 融資의 負擔을 없게 되었다。

國稅

◇……◇

國稅는 地方廳도 亦是 中央政府에 準하며 事務의 性質에 따라 各房 各色에 分營되고 徵稅 및 地方 統一이되었지 않고 地方 大同色은 土地 및 田稅 大同色은 大同의米、布、錢、均役色은 均役、結役色은 地方民에게 賦課하는 役 奴婢貢、 司倉色은 還穀、 諸倉色은 其倉庫의出納 兵房色은 軍保 및 番錢、 水軍色은 水軍保 및 番錢(註·色은 只今 係에 該當) 또 村落에 있어서는 一鄕에 座首를 두고 座首밑에 다시 面里統에 首里에 두고、 地方에 徵收 및 督促 의 任務를 지웠다。 이 組織은 麗朝以來 開國五〇三年 近代的 制度 實施때까지 繼續되었으나 世祖時에 一時 中止를 본 以外에 變動이 없었다。 肅宗時에 五家作統의 事目二十一條를 制定하였을 때、 統里는 同時에 風朝의 維持者로 條目中에 規定되었었다。

收稅物은 各道 船舶集合地點에 船 船은 備置하고 各郡의 轉送만 郡을 定하여 納 付케하고 各倉에는 都 差員、 差吏員을 두고 稅 檢査하고 包裝船 物을 積하여 中央政府의 倉庫에 回送시켰다。 交通 船을 賃貸하여 中央政府의 倉庫에 直納하고 布、 山郡에 있어서는 綿 또는 錢(돈)의 代納을 許容하여 中央政府에 直納 시켰다。

(글쓴이·法政大敎授)

西洋政治史上 너무나 有名한 大政治家 비스마르크의 생생한 발자취!! 드디어 絶讀裡 刊行!!

鐵血宰相 비스마르크

延世大学校 敎授 政治学博士 金明會 序述

〈비스마르크〉는 19世紀後半期에 四分五裂된 독일 와 여러 聯邦을 하나로 統一하여 独逸帝國을 이룩한 大政治家이다. 그는 当時에 〈피와 鉄〉을 앞세워 超人的인 活躍으로 그 歷史的인 大業을 이루어 노았던 것이다. 보라. 여기 그 智謀와 術策과 妙策이 애절이 그려져 있는 英雄의 一大記錄을…

四六版·高級模造·洋裝·케스入 값 140원 社会科学研究会 編 新潮文化社 発行 ☎ 3652 7185

學生會의 提議

印度의 學生活動

大學生의 海外旅行 장려도 建議

人種 言語 宗教等의 복잡성 — 强力한 國家위해 統合을 모색

世界의 大學街

印度는 기후、지리、인종、언어、정치、종교등 여러면에 있어서 대단히 다양성을 지니고있는 나라다。힌두語가 약 50%의 국민에게 使用되고있고 그리고 言語와 五백을넘는 방언들이 쓰여지고 있다。

宗教面에서도 大多數 印度國民이 힌두教徒이지만 四千五百萬에 달하는 回教徒、基督教徒、유대教、시크教、조르아스타教徒等等이 있다。

지난 一年 동안의 學會活動은 대체적으로 보아 低調한편이었다。그리고 자칫하면 形式的이고 귀치레에따지기 쉬운行事들이 막대한 豫算을 消費하기도 하였다。學生들이 學會費를 내는 理由와 目的에 對해서는여기서 曰可曰否할 것이아니지만 우리는우리가낸學會費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다시 한번 살펴보고 批判을 加함으로써 보다나은 學會活動을 마련해 보자。

大佛學教

文理科大學

法政大學

是 學會活動 非

一年동안의學會活動總決算

佛教學會

四個單科大學中 學生數가 가장 적은 佛教大學에 있어서는 學生 및 哲學 兩學會가 지난해 보다는 좀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學會活動의 方向이 學生들스스로의 발의 및 그 發表等 좀더 새로운 學問的 境地를 開拓해야 된다는 點에서 본다면 講演會 程度나 創意性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수 없다。

물론 이제 敎養科目 履修의 課程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격우 專攻分野의 入門에선 學問的 境地를 獨創的인 개척 수 있는 實踐을 바아할 세이다。그러나 그 實踐은 너무 지나친 욕심에 속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個人이 떠나서 學會單位나 구분별로 라도 아니면 한해동안에 무엇인가 찾아 보고 저하는 試圖쯤은 있어야 했을 것이다。

四學會의 講演會 程度는 그리고 계급차별은 法律로써 금지되었고 傳統的인 組織이 무너졌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印度에는 계급별주의자들이 그들끼리 社會活動을 하고 있다。

이런 點들이 바로 印度의 民主主義를 構成하고 있는 要素들이다。이런 文化的인 복잡성이 아마 印度에 계속 동안은 存在할것이다。그러나 요즈음에는 文化的인 북서 잡성이 훨씬 和合되지 않는다면 强力한 國家는 세워질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하자면 하고 있다。말하자면 文化的인 잡성을 국가라는 복나를 위해 統合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印度의 大學生들은 「全國大學生會議」를 通하여 「文化의 全國的統合」을 問題의 초점으로 삼도록 하였고 十二個大學校와 다른 高等教育機關 代表50余名이 討議하기 위하여 일을 「마드라스」大學校에 몰였었다。

이 學生會議에서는 수성에 비추어 學生 身分에 어긋나는 일 이 會議가 發足한 순간에는 가담치 않도록 결의하였다。印度에서는 學生들이 의해서 各種파업들이 종종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大學에 研究크럽을組織해서 研究 및 宗教에 對해 이 必要하다고하였다。

이 會에서 提出한 特異한것은 放學을 利用하여 大學生들을 世界各國에 旅行토록권장하자는것이다。旅行을 通하여 他國의 文物이 어떻게 發展하여가고 있는가를 身分에 어긋나는 일 이 會議에서는 가담치 않도록 결의하였다。印度에서는 學生들이 의해서 各種파업들이 종종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大學에 研究크럽을組織해서 研究 및 宗教에 對해 이 必要하다고하였다。

이 會에서 提出한 特異한것은 放學을 利用하여 大學生들을 世界各國에 旅行토록권장하자는것이다。旅行을 通하여 他國의 文物이 어떻게 發展하여가고 있는가를 社會에 進出시켜야 한다고 前提하고 各分野에서 얻은 學位와 知識이 實用的으로 쓰일 수 있도록 國家는 國家에서 보장하고 結論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 「全國大學生會議」가 가장 强力히 主張하고 있는 것은 學生會議가 全國的 統合을 통한 國家的인 統一 强力한 國家위해 統合을 모색 — 印度文大上들이 젊은人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다 —

그리고 이런 意慾的인 競技를 通하여 國家에서 보장하고 學生들의 敎育과 文化의 向上을 도모하고 勞動의 生産性을 增進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가 提出한 提議는 全印度的인 統一 敎育과 文化의 向上을 도모하고 勞動의 生産性을 增進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가 提出한 提議는 全印度的인 統一 敎育과 文化의 向上을 도모하고 勞動의 生産性을 增進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가 提出한 提議는 全印度的인 統一 敎育과 文化의 向上을 도모하고 勞動의 生産性을 增進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學生들은 너무 한가한 가운데 너무 아까운 時間을 浪費하고 있다고 指摘한 「大學生會議」는 文化의 全面的 統合을 위하여 勞動의 존엄성에 대한 理解를 확성한 現實의 要求하는 經濟自立과 活動의 기민성을 協助를 할 것이다。

그리고 印度 뿐만 아니라 印度의 宗教 世界의 宗教 여러가지 宗教의 眞理를 잘 알고 있는 人材를 結論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各 大學에 同會議에서는 各 研究크럽을組織 宗教에 對 現實의 要求하는 活動 協助를 할 것이다。

印度 뿐만 아니라 印度의 宗教 世界의 宗教 여러가지 宗教의 眞理를 잘 알고 있는 人材를 結論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各 大學에 同會議에서는 各 研究크럽을組織 宗教에 對 現實의 要求하는 活動 協助를 할 것이다。

印度 뿐만 아니라 印度의 宗教 世界의 宗教 여러가지 宗教의 眞理를 잘 알고 있는 人材를 結論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各 大學에 同會議에서는 各 研究크럽을組織 宗教에 對 現實의 要求하는 活動 協助를 할 것이다。

印度 뿐만 아니라 印度의 宗教 世界의 宗教 여러가지 宗教의 眞理를 잘 알고 있는 人材를 結論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各 大學에 同會議에서는 各 研究크럽을組織 宗教에 對 現實의 要求하는 活動 協助를 할 것이다。

印度 뿐만 아니라 印度의 宗教 世界의 宗教 여러가지 宗教의 眞理를 잘 알고 있는 人材를 結論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各 大學에 同會議에서는 各 研究크럽을組織 宗教에 對 現實의 要求하는 活動 協助를 할 것이다。

印度 뿐만 아니라 印度의 宗教 世界의 宗教 여러가지 宗教의 眞理를 잘 알고 있는 人材를 結論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各 大學에 同會議에서는 各 研究크럽을組織 宗教에 對 現實의 要求하는 活動 協助를 할 것이다。

印度 뿐만 아니라 印度의 宗教 世界의 宗教 여러가지 宗教의 眞理를 잘 알고 있는 人材를 結論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各 大學에 同會議에서는 各 研究크럽을組織 宗教에 對 現實의 要求하는 活動 協助를 할 것이다。

印度 뿐만 아니라 印度의 宗教 世界의 宗教 여러가지 宗教의 眞理를 잘 알고 있는 人材를 結論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 會議에서는 各 大學에 同會議에서는 各 研究크럽을組織 宗教에 對 現實의 要求하는 活動 協助를 할 것이다。

印度 뿐만 아니라 印度의 宗教 世界의 宗教 여러가지 宗教의 眞理를 잘 알고 있는 人材를 結論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文理科大學

哲學會

數學會

國文學會

英文學會

物理學會

史學會

政治學會

經濟學會

行政學會

法學會

商學會

經營學會

生物學會

化學會

農學會

食品工學會

數物學會

演劇學會

農林經濟學會

林學會

應用微生物學會

現代知性人

카프카

【Franz Kafka 1883—1924】

結核으로 呻吟하며二回나 婚破 非現實的素材를現實的으로描寫 家族的 콤푸렉스에 苦悶

紳士 고-트·오-바 半価大特売!

스포-텍스 고-트 ₩1,590
빠이로 오-바 ₩2,790
왜 값이 쌀까요?
1. 原地를 有利한 條件으로 多量購入하므로
2. 現代化된 最新機械로 多量生産하므로 工賃이 싸지고 手工보다도 견고함
3. 薄利多賣
類似品에 유의하시고 잊지마시고 店舗를 確認하십시오
東和百貨店2층 구석쪽 旣成服部

文學講座 時事英語 학원 YMCA
開講 1月3日 ③ 8717
大學生 英語再出發班 (教材·위운名作小說 LADDER BOOKS) 1000單語小說班(夕5時·7時) 2000單語班 夕8時
留學英語班·三位一体班 夕5時~5時50分 夕6時~6時55分
TIME DIGEST 朝6時50分 夕7時20分~9時 高等英作文 30分間(二週一卷) 朝7時 夕6時
開講 1月3日 ③ 8717
冬期放學중間 英語세미나 各班1個月完成 每日3時間授業
留學英語班 (朝 9·30 ~12·30)
解釋·英作文·自由英作文 留學試驗問題集·칼프리헤손
英作文班 (13時30分 ~16·30)
基礎英作·文法·敎養英作·時事英作·社說영역·自由英作

詩集·金容浩著 衣裳洗禮
42篇의 嶄新한 作品集
詩壇의 重鎭이보내는 珠玉!。絶望과 不安속의 오늘을 노래해 놓은 이詩集은 現代人의 갖가지 精神況狀을 그려 놓고 있다
一朝閣 刊 46版總百60面·값百20원

이것이 비트 文學이다!
1. 美國 비트文學의 呼吸을
2. 海外留學生의 案內書로
3. 韓國 初有의 비트作品으로
4. 韓國隨筆文學의 金字塔으로
5. PR哲學의 指針書로
…꼭一讀할冊

憤怒의 旅窓
<美國의紀行隨筆集>
——비트 文學이란 美國의 現實만을 보는 態度가 아니다。二十世紀의 世界 現實全體를 바라보는 戰後 世界觀의 하나이다。……朴承薰씨는 그 제즈의 狂亂의 하나까지도 그의 스피디한 문장위에 轉用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무엇보다도 朴承薰씨의 文章은 직접 읽어보면 그 비트의 體 臭가 직접 文體로 옮겨진 것을 잘 안다。
白鐵 (序文中에서)
全國一齊發賣中
博愛社刊46版2段組350頁豪華版값100원

金時習의 透徹한 生涯

梅月堂을 通한 一貫한 生六臣

趙德煥

梅月堂은 能히 글을 알고 다섯살때 벌써 中庸을 通했다。

老宰相 許稠가 찾아와 梅月堂의 총명함을 보고 놀랐으니 「내가 老」字로 韻을 달았다。

어서 한번 詩를 지어 보라」

했더니 梅月堂은 許諾하고 그 말에 對答하여 『老木開花心不老』라 깍깍 하니까 그 老宰相은 놀랬고 찬사를 보내어 과연 이 아이는 神童이라 하였다한다。

이런 風聞은 宮內에까지 들어가서 世宗大王께서는 그 當時 承政院까지 불러 오게 하여 內禪사실을 命令하는 臣下에게 梅月堂의 才操를 試驗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이때 梅月堂은 「이 나이가 겨우 五歲」였다고 한다。

世宗大王의 試驗에 朴以昌은 梅月堂을 보았다。

命令받고 『童子之文學은 白鶴舞青空之外』

라고 하여놓고 梅月堂에게 答을 보내니 이에 놀라고 감탄하였다한다。

梅月堂은 宮內에 있지 않고 山川을 찾아 다니며 詩를 지었다。

그 當時 世宗大王께서는 그를 불러 承政院에 있게 하고 朴以昌이 命令하여 內禪사실을 內人에게 傳하였다。

梅月堂의 操行은 뛰어난 機智와 才能이었다。

그때 梅月堂은 「나는 이 나이가 겨우 五歲」였다고 한다。

世宗大王의 試驗에 朴以昌은 梅月堂을 보았다。

命令받고 梅月堂은 試驗해 보라고 했다。

『童子之文學은 白鶴舞青空之外』

라고 하여놓고 梅月堂에게 答을 보내니 이에 놀라고 감탄하였다。

이 「삼관귀」는 李朝 肅宗 六年(一六八〇)에 出生하여 英祖朝에 大提學을 지내고 英祖二十二年(一七四六)에 돌아간 陶菴 李縡의 지음으로서 그 (目)생각한 (心)바를 기록한 수필로 시대와 배경위주의 漢文隨記다。

漢文本인데 그당시 뉘 손에 의하여 번역되었는지 모르나 國譯本「삼관귀」발문에 보면 표제는 陶菴의 自署로 되어 있다。이 「삼관귀」는 天·地·人三卷과 「삼관귀」에 「仁顯王后傳」에서 「삼관귀」에 「三官記」는 李朝 肅宗 六年(一六八〇)에 出生하여 英祖朝에 大提學을 지내고 英祖二十二年(一七四六)에 돌아간 陶菴 李縡의 지음으로서 그 (目)생각한 (心)바를 기록한 수필로 시대와 배경위주의 漢文隨記다。

漢文本인데 그당시 뉘 손에 의하여 번역되었는지 모르나 國譯本「삼관귀」발문에 보면 표제는 陶菴의 自署로 되어 있다。이 「삼관귀」는 天·地·人三卷과 一、二卷과 三卷은 一、二卷과 三卷은 간에 있어도 그 當時 들은 지금도 分派가 있어 그 一黨들의 作者의 워낙 老論 君臨과 南人 權力다툼이었다 한 黨爭夜話들이 지만 비록 따분 찌른다。 風潮들이 지만 당시의 좋은 참고가 된다는데 다락 방(玉堂)逸話는 꿀 생님들의 오기와 절 조로 아름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三卷은 一、二卷과 다르니 後者는 作者 실과 時事인데 시기의 사 前者는 作者가 든 바를 回想한 것이 德的인 것이 訓話를 加味한 것이 黨論을 일체 않았다。 刮目할 만한 것은 우리 小說文學上 優位를 차지하고 「九雲夢」의 등장이다。 여기서도 일찌기 「九雲夢」의 主題를 佛陀의 作者 金萬重의 生涯 的인 모습과 人間 孝道로 섬기는 母夫人을 극진한 略述해 놓았고, 더우기 그 당시에 親戚들도 九雲夢이 널리 읽혀지고 있는것을 證해준다。 그리고 九傍 雲夢의 著作動機도 소상히 나와있어 하나 說明하고 있다。

이 「삼관귀」는 「仁顯王后傳」에서 「삼관귀」는 중요로서 「삼관귀」는 「삼관귀」는 「삼관귀」는